



닭고기 업계,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

- ✦ 육계산업 불황의 끝을 낮추자
- 이상배 · 54
- ✦ 닭고기의 유통과 가격구조
- 최충집 · 57
- ✦ 우리 몸에 맞는 육계 자조금 제도를
만들어 보자
- 박희권 · 60

닭고기 업계,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중

육계산업 불황의 골을 낮추자

불황이 오는 이유

양계산업의 불황과 호황은 매 3~4년을 주기로 되풀이되어 왔는데 양계인들조차도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너무도 답답해 양계업에 불황은 없고 호황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비현실적인 상상도 해보게 된다.

호경기에는 생산량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제동을 걸 수단과 방법이 없다. 그로 인해 증가량이 한계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불황기가 도래하게 된다. 이때에는 출하량에 비례해 적자가 누적되게 된다.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생산량을 감소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호황기 때 벌어놓은 돈이 모두 바닥이 나야 자의반 타의반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늘 반복해 왔다.

그래서 호황 뒤에는 불황이 있고, 불황 뒤에는 호황이 있음을 우리 육계업계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육계인들은 너무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금년에도 또다시 되풀이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경쟁이 있으면 불황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불황의 골을 대폭 낮추는 대안이 필요하다. 즉 욕심을 버려야 한다.

짧은 호황, 긴 불황

호황이 되면 종계업계는 자연스럽게 종계입추를 과다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종계의 생산성도 매우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병아리라는 생산자재가 과잉 공급되는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이후 거의 두 해가 넘는 기간 동안 육계업은 호황의 늪에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종계입추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생산된 종계는 부족해서 분양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물론 원종계 쿼터제로 인해 생산수가 줄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일부 원종계회사에서는 연장생산 등으로 쿼터제의 의미를 무색케 했으며 쿼터제 자체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바람에 원종계의 수입증가 회귀와 더불어 원종계의 신규업체마저 탄생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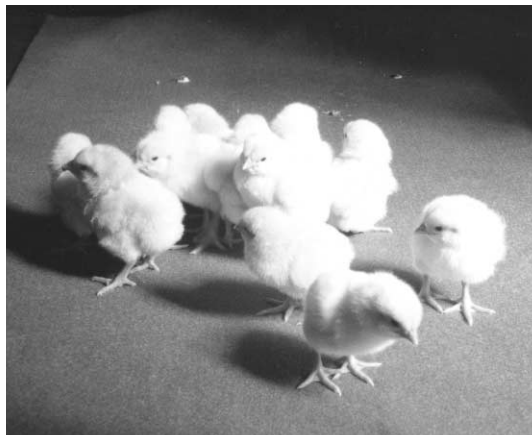


종계의 수요와 공급이 너무 많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 앞날에 대하여 이미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불황을 예고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또한 계열화 사업이 팽창되면서 부화장과 계열화 업체간의 병아리 공급계약이 결국 병아리의 생산수수 조절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유연성을 잃어버려 자연스럽게 시장의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2006년도에는 닭값과 병아리 가격이 동일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올해에는 닭값이 생산원가 근처 또는 그 이상이 되어도 병아리 가격은 100원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2003년 말에 육용종계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이듬해 3월까지 18개 농장에서 발병해 약 500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었는데, 육계산업의 어



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의 강력한 소비촉진 홍보정책에 힘입어 상황이 급반전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후 자율적 원종계 쿼터제로 인해 병아리와 닭고기의 생산이 감소되어 고가의 병아리값과 닭값이 지속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AI가 발생되어 일부 종란이 폐기될 때도 많은 이들은 2년 전의 호황을 꿈꾸는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과잉입추를 한 적도 있었다.

연중 균일한 병아리 생산을!

우선 종계의 입추시기를 분산하여 일정하게 함으로써 병아리의 생산수를 연중 고르게 해 특정기간에 생산이 몰려서 입식 농장이 부족하여 병아리 남는 것을 예방하고 부화장의 효율도 높여야 한다.

닭고기 업계,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

우리 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바와 같이 종계는 정부에서 경제주령 이내에 도태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여 환우로 인한 생산연장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주령 이내에 도태만 된다면 종계의 입추숫자만으로 누구든지 생산을 예측할 수 있어서 스스로가 불황에 대비하는 농장경영을 할 수 있다.


육계업은 계열화 사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부문간 연계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선진외국에서처럼 부문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가금산물 수급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적정수수 유지를 위한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막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열화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병아리의 시장은 왜곡되어 늘어난 숫자가 신축성 있게 조절되는 기능은 점점 떨어져 갈 것이다.

앞으로 인위적인 통제가 없다면 호황보다는 불황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황이 길다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업 활동의 유지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육계인들은 길어지는 불황 속에서 심한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주기적으로 불황이 오도록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뜨거운 난로에 손을 한번 데이고 나면 뜨거운 난로 곁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 할 것인데, 육계인들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불황이 오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하루속히 육계업이 농업분야, 즉 축산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제살 깎아먹는 식의 짧은 호황 뒤에 긴 불황이 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도 하지 않고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사람은 쉽게 용서하고 쉽게 잊는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

- 토머스 사스